

학력저하 우려에 국제중학교 경쟁률 30.8대 1까지 ‘굉충’

국제중, 특목·자사고 경쟁률 상승 경쟁력 있는 고교 선호 커질 전망 고교학점제, 자사고 동행 어려워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국제중, 특목·자사고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사고 존치와 고교학점제의 동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되는 만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국제중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특목·자사고의 선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3학년도 국제중 경쟁률을 살펴보면 부산국제중 일반전형은 30.8대 1까지 크게 올랐다. 이외에도 대원국제중 20.9대 1, 청심국제중 17.2대 1, 영훈국제중 10.4대 1로 4개 학교 모두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원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쟁력 있는 중학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을 시



장상윤(오른쪽) 교육부 차관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중경고등학교를 찾아 학점제형 공간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행하면서 학력상화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학력저하에 대한 전반적 우려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다음달 있을 특목·자사고 입시와도 연결돼 경쟁력 있는 고교에 대한 선호가 커질 전망이다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모여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자사고 입학 유무를 두고 고민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

책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서도 “일단 추적이 돼야 한다”며 합격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올해는 통합수능 도입 2년차, 윤석열 정부의 정시확대 추진 등으로 수능에 대한 준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교육 환경들이 앞으로 특목·자사고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특목·자사고 선호도가 높아지는 교육 현장의 양상은 2025년 도입되

는 고교학점제와 반대 기조를 보여 우려가 깊어진다. 일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시 특목·자사고 학생들의 경쟁력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제중, 자사고 등은 지정취소 소송이 여러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국제중과 자사고의 승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들은 해당 사례도 선호도 상승에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지난 8월 국제중 지정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 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며 “다시 한번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이 거론되자 자사고 폐지가 시사됐지만 윤 정부에 들어서는 모두 백지화됐

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자사고 존치를 골자로 한 새 고교체제 개편안 시안을 올 때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자사고 추진 당사자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로 경쟁교육 구도를 완화해 줄 열쇠 중 하나다. 학교에서의 학생 선발권이 아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특목·자사고 등을 신설하거나 고등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등의 방식은 고교평준화와 멀어지는 기조로 고교학점제와 상충될 수 있다.

이법 교육 평론가는 “경쟁교육 완화를 위해서는 고교평준화가 필요하고, 고교평준화를 현대적으로 진화시킨다는 것은 고교학점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과 같다”며 “다만 지금 교육부 설계보다는 선택권을 많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의 특성상 고교학점제는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 위기학생 토론회

좋은교사운동과 공동 기획 실천적 해결방안 함께 고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정서행동 위기학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5일, 22일 2차례에 걸쳐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풀어내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기획했다. 최근 학급 친구 물리적 위협, 교실이탈, 교사와 친구에게 욕설 등 학교 현장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천적

인 해결 방안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서울교육)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된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행동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270여명의 교육관계자들이 토론회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회는 안상진 서울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팀장이 맡았다. 15일 1차 토론회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의 공감대 확산 및 문제 해결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최경희 수원 탐동초 교사,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이, 이재욱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류신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상담심리 박사 과정자가 참여한다. 이후 22일 2차 토론회에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를 주제로 문수정 서울 남부초 교사, 박계신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김정민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토론회 결과를 실제 교육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해 업무 관련자인 신선호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김예리 특수교육과 행동중재전문관이 직접 토론회자로 참여한다.

/신하은 기자

순천향대, 전보련 연합 학술대회 ‘대상’

IT금융경영학과 4학년 학생 4명

순천향대학교는 ‘제26회 전국대학보훈관련학과연합회 연합 학술대회’에서 IT금융경영학과 4학년 학생 4명이 영예로운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훈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보훈산업의 발전, 보훈 소비자 보호 등 보훈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 발표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전국대학 보훈

관련학과 연합회’ 주최로 개최됐다. 대회에는 순천향대를 비롯한 12개 대학의 보훈 관련 학과 학생, 교수 그리고 보훈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4학년 송재관(16학번), 송두섭(16학번), 박수빈(18학번), 정예은(18학번) 학생은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상품 구매 의사 결정요인 분석 연구’를 주제로 영예로운 대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신하은 기자



한국외대와 주한 폴란드 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2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외대

“청소년기 수면의 질·양, 최종학력 영향”

김진호 고려대 교수 연구

고려대학교는 김진호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사진)가 안젤리나 수틴 플로리다주립대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수행한 연구에서 청소년기 수면의 양과 질이 성인기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발달심리학 분야 저명 학술지



인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에 게재됐다. (IF = 8.982, 상위 0.649% (1/78))

이번 연구는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to Adult Health 데이터를 활용해,

3303명의 남성 및 여성을 청소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22년 간 추적조사했다. 가족 환경 및 유전 등 가족 내에서 공유하는 이질성을 제거하기 위해 형제를 대조하는 방식의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수면과 최종학력 간 관계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가족 내 이질성을 제거한 이후에도 청소년기 수면의 질과 양은 성인기 최종 학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신하은 기자

한국외대,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는 지난 9일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주한 폴란드 대사관(대사 Piotr Ostaszewski)과 공동으로 ‘제12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과 폴란드의 위인 혹은 스타’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는 총 25명의 참가자 중 10명의 학생이 본선에 올라 결선 무대에서 열린 경연을 벌였다.

/신하은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소방노조, 이상민 고발...“최고 책임자 진상규명해야” /사진 뉴스1
▲서울경찰, 수능 안전관리에 1600여명 투입

▲수능 앞 7차 대우행...“확진자 별도 시험장 약 3배 늘려”
▲“폭설 대비”...구로구, 노면위 눈 녹이는 도로열선 설치



▲정기석 “올 코로나 사망 2만7000명 추정...독감 100배” /사진 뉴스1
▲우리나라 확진자 많은 까닭?...“활발한 검사 등 이유”